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4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19일 (음력 6월 7일) 목요일

광주·전남 온열환자·가축폐사 피해 잇따라

광주와 전남지역에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환자·가축폐사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8일 광주와 전남도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지역 온열환자는 2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3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퇴원했다.

전남지역은 62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가축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나주와 영암, 곡성 등 축산농가 121곳에

재해재난본부, 온열환자 88명·가축 13만8000마리 폐사

폭염 지속 될수록 피해규모 커질 듯...각별한 관리 요구

서 닭과 오리, 돼지 등 13만8000마리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했다. 피해액은 9억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남 12만4000마리, 7억8000만원의 피해에서 11.2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축폐사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나주로 34농가에서 3만3000마리가 죽었으며 영

암 11농가 2만5000마리, 곡성 8농가 2만2000마리 순이다.

종별로는 닭이 48농가 12만8000마리가 폐사했으며 오리 6농가 1만마리, 돼지 67농가 70마리이다.

폭염이 지속될 수록 피해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는 455농

가 101만2000마리였으며 33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354농가 86만2000마리가 폐사해 2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를 비롯해 전남 장흥·화순·나주·함평·순천·광양·여수·보성·구례·곡성·담양 지역에 폭염경보, 거문도·초도·무안·진도·신안(흑산면 제외)·목포·영광·영암·완도·해남·강진·고흥·장성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온은 광양·순천 35.6도를 최고로 함평 35.5도, 광주 35.3도, 구례 35.3도, 곡성 35.1도, 나주 34.9도를 기록 중이다.

신봉우 기자



“올여름은 대나무정원으로 오세요”

담양 죽녹원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대나무 숲 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로운 휴가를 보내기 안성맞춤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한 가족이 죽녹원 산책로를 거닐며 산림욕을 즐기고 있다.

‘폭우피해’ 보성읍·회천면 읍면동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방비 부담분 일부 국고 추가 지원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보성군 보성읍과 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읍면동 단위로는 처음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날 26일부터 이날 4일까지 호우피해와 관련해 보성군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고를 추가 지원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보성군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실시한 결과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억50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됐다.

지난해 7월 충청지역 호우피해 당시 읍·면·동 단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시·군·구 단위 선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은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재난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부는 1995년 7월19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 시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처음으로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후 2008년 2월18일 대구지하철화재참사로 인해 사고 다음날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인천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2017년 7월에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충남 천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안구일 기자



경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질똥된 계파 논쟁과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가 죽어서 거름이 되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에서 의결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정치를 인정한다는 미명하에 계파 논쟁과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저는 아무런 힘도 없고 계파가 없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 아니니 공천권도 없다”면서도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지탄, 그러면서도 아직 놓지 않은 한 가지 희망이 자애권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망과 지탄, 희망, 걱정 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당을 비로 세우고 한국 정치를 비로 세우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자료사진=뉴시스



전재수



김병준



전재수

제46회 전국물레성형경진대회

투게더 점핑 소일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

강진 청자축제

2018. 7. 28.-8. 3.(7일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개막퍼포먼스 : 2018. 7. 28.(토) 오후 7시

기획행사 : 춤을 받고·던지고·찍시고(투게더 점핑 소일), 전국 물레성형경진대회 등
전시행사 : 전국 도자 전시 및 판매, 제18회 고려청자 특별전, 조선민화 특별전 등
체험행사 : 불링공 청자 깨뜨리기, 물 풍선터뜨리 청자 가져가기, 초대형 워터 슬라이딩
공연행사 : 광주KBC개막 축하쇼, 나이트 팝 페스티벌, 한여름밤의 EDM 공연 등

제11회 정남진 장흥도초제

2018.7.27.(금)~8.2.(목) / 7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개막식 : 7월 27일 (금) 오후 8시
삼수(瀟水)대첩 거리 퍼레이드 : 7월 28일 (토) 오후 1시
지상 최대의 물싸움 : 7월 27일 (금) ~ 8월 2일 (목) 오후 2시
맨손 물고기 잡기 : 7월 28일 (토) ~ 8월 2일 (목) 오후 3시
장흥 워터樂 폴타리
- 7월 27일 / 로꼬, 다이나믹듀오, DJ 소다, DJ 두유
- 7월 28일 / DJ 원투, DJ 허조코
- 7월 29일 / DJ 춘자, DJ miss K